

환 영 사

심 대 평
(충청남도지사)

자치단체 재정의 효율적 운영 방안을 제시해줄 '2001 지방재정 세미나'가 우리 고장에서 열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우리 道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아울러 행사를 주관하시는 한국지방재정학회, 한국재정학회, 한국지방재정공제회, 그리고 이를 후원해주시는 행정자치부의 관계관 여러분께 깊은 謝意를 표하면서, 알찬 준비로 주제발표와 토론에 임해주실 여러 교수님과 전문가 여러분께도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지방자치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든든한 지방재정의 확보와 이의 효율적인 운영이 선결 과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늘어나는 지역민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자율적인 지방행정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재정의 자립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지적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나라 전체 자치단체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60퍼센트 정도이며, 그것도 전국 아홉 개 道의 경우에는 35퍼센트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이처럼 열악한 재정을 가진 자치단체가 주민들이 원하는 공공서비스를 적절히 제공하기는 어려운 것이며, 이는 곧 중앙정부에 대한 의존도를 높이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도시와 농촌 등 자치단체간 재정자립도의 격차는 지역의 균형발전에도 적지 않은 지장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課稅나 예산 결정 및 집행의 자주권이 확보되어야 하겠지만, 이것은 국가적이고 장기적인 시각에서 많은 연구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현재의 주어진 여건 속에서 어떻게 하면 더욱 건전하게 지방재정을 운용해서 지역의 균형발전을 꾀할 수 있는가를 모색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라 하겠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바로 이러한 필요성과 그 주제가 일치하고 있다는 점에서 관심과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국가와 지방재정 분야에 정통하신 여러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제기된 새로운 방안들은 앞으로 자치단체 재정의 건전성을 높이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사실, 지방재정은 지역경제의 성장과 안정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서 이는 국가경제와도 직결되는 사항입니다.

더구나 요즘처럼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자치단체 하나 하나의 健實 재정 실현은 국가경제의 안정에도 크게 이바지하게 될 것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道에서는 생산성과 효율성에 초점을 맞춘 ‘成果主義형 자치재정’의 틀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재원 배분과 경상비 절감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 낭비 없는 재정을 실현하고자 다각적인 노력도 기울여 왔습니다.

이런 노력이 성과를 거두어 지난번 행자부가 실시한 2000년 지방재정 운영 평가에서 최우수 道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만, 앞으로 더욱 진력해야 함은 물론입니다.

특히 우리나라 여건상, 중앙과 지방, 또는 광역단체와 기초단체간의 재정협력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의 재정자립을 위한 중앙의 배려와 균형 있는 지역투자를 위한 자치단체간의 지혜로 일선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때, 지방정부는 물론 국가의 경쟁력도 높아질 것입니다.

모쪼록 이번 세미나가 지방과 국가 발전의 밑거름이 되는 지방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빛나는 지혜를 모아주기를 기대하면서, 알차고 유익하게 행사가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지역과 자치행정의 발전을 위해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참석자 여러분께 거듭 감사를 드리며,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발전을 기원합니다.

2001년 8월 30일

충청남도지사 沈 大 平